

경지 & 신입



콘지암리조트 “메타버스 리조트로 놀러오세요”
 경기도 광주 콘지암리조트는 30일 로블록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가상체험 ‘콘지암리조트 월드’를 공식 출시한다. 실제 리조트의 주요 공간인 콘도 빌리지, 시계탑광장, 생태해천, 스키 슬로프, 루지 트랙, 하늘공원 등 6개 테마로 구성했다. 콘지암리조트는 모바일 앱에 메타버스를 적용하여 디지털 세계와 리조트를 연계하고 시즌별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채로운 고객 경험으로 눈길끄는 ‘hy’

캐릭터 ‘야쿠’·24시 무인매장·친환경 카트까지

자체 제작 캐릭터로 MZ세대와 소통 오리지널 굿즈·제품 패키지에 적용 ‘프레딧샵’ 오픈...인지도 향상 기대 매장 전동카트, 3세대 모델로 교체



▲야쿠르트를 의인화한 캐릭터 ‘야쿠’

hy가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유통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인 ‘야쿠르트 라이트’(이하 야쿠르트)를 의인화한 캐릭터 ‘야쿠’를 비롯해 24시간 운영 무인 매장 ‘프레딧샵’,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프레시 매니저가 탑승하는 3세대 탑승형 냉장 카트 ‘코코3.0’ 등 자사의 특징을 담아 고객이 참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캐릭터 ‘야쿠’와 프레딧샵 1호점 선보여

먼저 20일 자체 제작 캐릭터 ‘야쿠’를 선보였다. 야쿠는 hy의 베스트셀러인 야쿠르트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야쿠르트가 연상된다. 고유의 병 모양과 녹색, 베이지, 빨간색을 사용해 복고 감



hy가 다채로운 고객 경험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매장인 ‘프레딧샵’ 1호점(왼쪽)과 프레시 매니저가 탑승하는 3세대 냉장 전동카트인 ‘코코3.0’.



사진제공 | hy

성을 살렸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에는 야쿠르트를 처음 접했던 어린시절이 떠오른다.

캐릭터 기반 IP(지적재산)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여러 표정과 포즈로 변형 가능해 굿즈 제작 및 제품 패키지에 용이하다. 핸드타일, 우유컵, 피크닉용품 등 생활 밀접형 제품을 필두로, 향후 마케팅 목적에 따라 판매용과 고객 증정용으로 나뉘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공간전확과 제품 배송차량에도 적용한다.

이정호 hy 디자인팀 담당은 “야쿠는 1971년 탄생해 51년간 고객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야쿠르트를 견해석한 캐릭터”라며 “오리지널 굿즈 제작과 기획 이벤트 등 새 시도를 통해 2030 MZ세대 고객과의 친근감 있는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28일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매장인 ‘프레딧샵’ 1호점을 오픈했다. 평소 프레시 매

니저와 대면이 어려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목적으로 기획했다. 또 자사 온라인몰인 ‘프레딧’의 취급 품목 중 유제품, 밀키트, 샐러드 등 인기가 높은 200여 개 제품을 엄선해 판매하는 만큼, 프레딧의 인지도 향상도 기대된다.

셀프 키오스크를 통해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자사 채널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외관은 프레딧 메인 색상인 녹색을 사용했다. 이지는 hy 플랫폼CM팀장은 “프레딧샵은 hy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채널”이라며 “프레딧의 신선·유기농 콘셉트를 경험하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온라인몰의 신규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는 창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코코3.0’으로 친환경 배송 추구

프레시 매니저가 탑승하는 3세대 냉장 전동카트인 ‘코코3.0’은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기로

구동해서 배출가스와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다. 제품 적재 칸은 통상 5도 온도를 유지하기에 냉장 유통을 위한 스티로폼 박스 등 포장 부재가 필요 없다.

또 기존 대비 20% 커진 냉장 적재공간과 다양해진 옵션이 특징이다. 주 사용자인 프레시 매니저의 의견을 모아 열선 손잡이를 비롯해 추돌방지센서와 조향보조장치 등을 추가 탑재했다. 상판 도어에는 원격 제어 가능한 전자식 잠금장치를 적용해 도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도입 1년 만에 2000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기존 카트 1만여 대를 신형 모델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코코3.0 개발 및 보급에 총 1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명수 hy 구매팀장은 “탑승형 전동카트 코코는 고객 만족을 위한 장기적 투자의 결실이며 hy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3.0 버전의 보급 속도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2022 워즈오트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을 수상한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제공 | 현대차

“아이오닉5, 자동차의 의미 재정의” 美워즈오트 ‘최고 10대 엔진’ 수상

주행성능·초고속 충전 기술서 높은 평가 받아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시스템이 미국 자동차 매체 ‘워즈오트’가 선정하는 ‘2022 워즈오트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을 수상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트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10대 엔진’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 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로 인해 파워트레인 분야의 전통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워즈오트 측은 2019년부터 수상 명칭을 ‘최고 10대 엔진’에서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으로 변경했다.

28회 짝을 맞는 올해 결과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에 탑재된 29개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워즈오트 심사위원단이 성능과 효율,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개의 파워트레인을 선정했다.

최고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아이오닉 5의 동력시스템은 우수한 주행성능과 초고속 충전 기술,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오닉 5는 4륜구동 기준 최대출력 239kW, 최대토크 605N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458km(2WD, 19인치 휠,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에 달한다.

워즈오트 심사위원 류루 윈터는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고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 냈다”며 “아이오닉 5의 동력시스템은 자동차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초고속 충전과 V2L 등 차별화된 기술들을 통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친환경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 그룹 첫 ‘ESG 보고서’ 발간...구광모 “클린테크 육성”

지난해 자원재활용 분야 성과 늘어 연내 탄소감축 전략 담은 보고서 발간

LG가 28일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LG가 계열사 ESG 활동을 종합한 그룹 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주요 계열사 ESG 전략과 성과 등을 담았다.

LG그룹 ESG 방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고객가치 실현’이다. LG는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ESG 기반 강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해결을 위해 LG 내부부 이

해관계자와 함께 ESG 생태계 구축 ▲기후위기와 탈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사업 방식 변화 등 3대 전략 체계도 수립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3년 간 ESG 경영 현황과 관련 데이터도 담겼다. 먼저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보다 지난해 238만4000톤의 용수를 더 재활용·재사용했고, 일반폐기물 재활용량은 1만7073톤, 지정폐기의 재활용량은 2만4448톤 늘었다.

사회공헌 기부와 투자 규모도 늘었다. LG 계열사들이 지난해 기부 또는 투자한

사회공헌 관련 금액은 약 1509억 원으로, 2020년보다 576억 원 증가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는 9801억 원 규모로 협력회사를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선 지난해 10개 계열사가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LG는 ESG 전략 이행의 첫 단계로, 연내 그룹의 탄소 감축 전략 및 로드맵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구광모 LG 회장은 “LG는 전 세계가 당



6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구광모 회장이 친환경 바이오 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LG

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클린테크 육성·투자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노엘 만자노 AMCNETWORKS 글로벌 제작 총괄, 해럴드 그로네타 AMCNETWORKS 부사장, 김준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 김철연 KT스튜디오지니 대표. 사진제공 | KT

KT, AMC와 콘텐츠 제휴·공동제작 협력

KT, KT스튜디오지니는 AMCNETWORKS, AMC스튜디오와 콘텐츠 제휴 협력 및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MCNETWORKS는 미국의 대표 케이블 채널 사업자로, ‘워킹 테드’를 비롯한 유명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한 AMC스튜디오를 산하에 두고 있다. KT와 AMC는 AMC스튜디오가 제작한 최신 오리지널 시리즈를 비롯한 AMC+(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올레tv 월정액 서비스인 ‘프라이프 슈퍼팩’에 국내 최초로 독점 서비스한다. 28일부터 시범적으로 프라이프 슈퍼팩의 AMC+ 메뉴에서 ‘워킹 테드: 오리진’을 비롯한 6개 드라마를 공개한다. 정식 출시는 10월 중이며,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KT스튜디오지니는 AMC스튜디오와 함께 콘텐츠 기획·제작, 투자 사업 등을 논의하며 전방위로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sereno@donga.com

동행복권, 도박·복권 과몰입 예방 ‘2022 행복힐링캠프’ 열어

도박중독자·복권과몰입자 25명 참가 명상·토크콘서트 통해 극복의지 다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이 24일에서 25일까지 1박 2일간 복권과 몰입 및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2022 행복힐링캠프’를 열었다.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행복힐링캠프’에는 도박중독자, 복권 과몰입자 등 약 25명이 참가했다. ‘잠깐 멈춤’이라는



충북 충주의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응달샘’에서 열린 2022 행복힐링캠프 참가자들이 휴식과 명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도박중독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사진제공 | 동행복권

주제로 휴식과 명상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얻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충북 충주의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응달샘’에서 심잉불(티베트 전통악기)을 활용한 명상의 시간으로 긴장감을 완화하고 지친 몸을 치유했으며 탁구공 빨리 옮기기, 페트병 세우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박중독 후 재기에 성공한 개그맨 황기순씨가 도박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